THE DONG-A ILBO

共同委員會再開에關한

美蘇兩司令官의交換書翰內容

莫府決定反對者選定말정

【公報部特別發表】

하-지中將은 昨年十一月上旬에 美蘇共委再開에 對하야 美蘇兩側間에 往來된 書翰의 內容을 發表한바 있엇거니와 其後 蘇聯側으로부터 十一月二十六日附 書翰이 왓엇고 이에對하야 美國側에서는 十二月二十四日附로 回信을 하엿든바 이의 內容에對하야 十二月公報部를 通하야 다음과같이 發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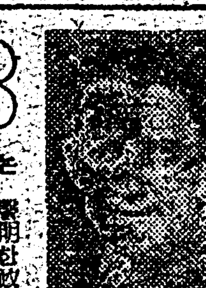
[illegible] 最近書翰의交換은 十一月二十六日附 蘇聯側의 書翰과 十二月二十四日附 美國側의 回信이있다 [illegible] 下記諸項目에서 朝鮮人各團體와 [illegible] 再開하기를 提議하였다 【原文은 치스차코프大將】

(一) 共同委員會는 반드시 朝鮮에 關한 모스코-決定을 全的으로 支持하는 民主主義政黨及社會團體와 協議할것

(二) 共同委員會와 協議하기爲하야 招請을 받은各政黨及社會團體는 積極的으로 모스코-決定과 共同委員의 任務에 反對 [illegible]

(三) 共同委員會와 協議하기爲하야 招請을 받은各政黨及社會團體는 모스코-決定及共同委員의 任務에 反對하는 [illegible] 他人에게 此를煽動치말것 [illegible]

五號署明團體는協議에參加



(美國) 同十二月二十四日附回答은 이미聲明한美軍司令官의 [illegible] 朝鮮國民에게 自己의 臨時政府를 組織하는데있어서의 [illegible] 다【當局은아-저中將】

(提議) 共同委員會聲明書第五號에 署名한것은 모스코-決定을全的으로支持한다는 [illegible]

(其二) 自己의意思를 가장잘代表하여주리라고믿는 代表를 選任하는데 있어서 [illegible]

(其三) 協議하기爲하야 招請을받은 個人 政黨及社會團體는 共同委員會의 任務에 對하야서나 [illegible]

(共同) 委員會 聲明書第五號에 署名한 個人 政黨 或은 社會團體로써 共同委員會의 事務에 對하여서나 聯合國에 對하여서나 또는 모스코-決定의 實施에 對하야 積極的反對를 煽動하는 [illegible] 協議에서 此를 除外할것 그리고 如斯한 個人 政黨은 [illegible] 共同委員會의 同意로써 此를 決定할것

共委再開氣運없다

美國務省도發表

【워싱톤十一日發 INS合同】 美國務省當局은 北朝鮮駐屯蘇聯軍司令官「치스챠아코프」中將과 南朝鮮美軍司令官「하-지」中將間에 [illegible] 朝鮮問題에 關하야 交換된 書翰內容을 發表하였는데 이에 依하면 [illegible] 保留的으로 支持하는 民主主義的政黨團體만을 美蘇共委의 相談對象으로 [illegible] 있음으로 美蘇共委의 再開展望은 보이지않는다고 한다

朝鮮問題UN에上程

三十五個國代表들이主張

【公報部特別發表】 [illegible]

李博士民議에打電

政府共系逐出

美下院議長言

李承晩博士電報

【워싱톤李承晩博士電報】 [illegible] UN總會에上 [illegible] 하여왓다한다

託治條項取消要求

民議、美蘇英中元首에打電

民主議院代理議長金九氏는 [illegible] 朝鮮獨立에關한 [illegible] 要請하였다

敵産拂下反對

産建協會서聲明

[illegible]

歐洲、亞細亞方面

美利權은撤回않겠다

美海軍長官談

【워싱톤十一日發AP合同】 美國務省 [illegible] UN이實際上의 [illegible]

마氏失敗는莫府서批判될터

國共調停失敗에對하야中共側談

【北平十一日發AP合同】 [illegible]

마氏就任時까지

번즈氏繼續執務

【워싱톤十一日發AFP合同】 [illegible]

日賠償即實施

美國陸軍兩省發表

【워싱톤十日發共立】 [illegible]

美식은政策

民戰서反駁聲明

[illegible]

呂氏十日木浦에

政治工作再活潑化

[illegible]

蘇·阜間貿易協定締結

【부카레스트十日發共立】 [illegible]

連絡委員任命을論議

立議

[illegible]

大連港返還問題로

中蘇間에交涉再開

【北平十一日發AP合同】 [illegible]

安保理·界軍縮問題

濠의妥協案도逐水泡

【런던十日發共立】 [illegible]

立議에보내는

(1) 軍政長官맷씨-지

「立議」의 八次會期開上에서 軍政長官代理 [illegible] 公報部特別發表 [illegible]

人事

▲許政氏 ▲李範九氏 [illegible]

廣告

廣告下命은

不具者에게 喜消息

大元洋行義手足部

各種學習帳 紙加工品 敎育品 製造販賣

韓光紙物商會

學生募集 (夜間)

國民大學館本部

高級洋酒 뉴-스터워스키 泰東公司

三一萬歲事件의全貌요! 民族解放의烽火篇!

三一革命記 前後篇上映

13日 國都劇場 성동극장 부공회

大榮洋行

戰災民에 援護의 손길
本社巡廻醫療班活躍

해방된조국을 그리웁게 찾어서 돌아온 전재동포들의 처지는 고통은 형언에 가장으로 병마에 걸리어 이재동포의 참상은 비참한 형편이다 이와 동시에 각도 주민들의 완전으로 마을등에 생기는 모든 약질까지 구제코저 본사에서는 재해민과 의 [illegible] 사업는 금번 순회의료반을 조직 하여 가지고 보건후생부의 후원아래 다수의 약품을 휴대하고 시내후생의원(院長 [illegible]) 의사 [illegible] 내과 외과 산부인과등의의사 四명에 조수두명 합하야 六명의 일행는 지난 十일 서울을 떠나 제一차로 충청북도 十군으로 출발하였다 일정은 다음과 같으며 이번 순회구호의 성적을 보아 기타 각도도 순회 의료에 봉사하기로 되었다

▲一月十一日―十五日淸州▲同十五日―十八日鎭川▲同十八日―二十三日陰城▲同二十三日―二十六日忠州▲同二十六日―二月一日堤川▲同二日―三日丹陽▲同六日―八日永同▲同八日―十一日沃川▲同十一日―十二日報恩▲同十二日―十四日槐山

民族의 激憤은 高調
美軍蠻行에 輿論沸騰

해방의 사도요 은인으로서 존경하야 맞이한 소련군대에 대하야 한동안 이북에 동포들이 치를떨며 경원하게된 최대원인이 부녀능욕과 강탈이었다고 전문되었다 그런데 또 무슨피변이냐 가장 인류의 평화도의를 자랑하는 미국군인에서도 이러한만행을 저질러 일반의 분격은 불궁하게 되었다 이번 호남선에서 생긴 미군인 열차속의 만행에대하야 미군당국에서는 엄중처벌할것으로 믿거니와 이 정상이 한번 세간에전파되자 사회각방면 좌우양의정당단체에서는 각기 성명서를 발표하야 금후 이러한 불상사가 근절되기를 요청하고있다

民族的侮辱
今後疑惑많다
獨促愛國婦人會

(1)平和의使節이요 女性을 尊敬한다는 美軍人으로 朝鮮女性을 凌辱한것은 民族的侮辱이다 (2)貞操를生命보다 소중하게여기는 우리朝鮮女性은 美軍人의 今後行動에 對하야 至大한 의혹을가지게되었다 (3)今般 이美軍人의暴行은 嚴重處罰함으로서 우리 一千五百萬女性과 民族에게 謝罪하는同時에 憤恨이 없도록 하지바란다

犯人은 極刑에 處하라
獨促國民會發表

(前略) 美軍犯罪者는 이 事件犯罪者에 嚴重處罰하는 同時에 今後不祥事가 發生치못하도록 하여주기를 바란다 特히 列車內에 美軍專用車란 朝鮮國民을 開放하야 列車와 驛構內에 警察權을 行使할수있도록 하여주기를 바란다

容認못한다
獨促靑年總聯發表

(前略)今番과같은 人權平和의侵害者로 自處하는 美軍人으로서 우리姉妹에게 非人道的인 野蠻行爲에 對하야서는 民族的良心으로 黙認할수없는것이다 우리는 單一民族으로서의 精神文化中 特히 婦女道德과 倫理觀念은 先進文明國에 뒤떠러지지않을것은 事實이 證明하는바이다(中略) 本聯盟으로서는 이에 對하여 責任者에 要求하고 있는바 結果如何에 따라 全民族의 良心에 呼訴할것이다

美軍에 對한 信賴感大減
朝鮮靑年黨發表

조선재래 풍습에 의하면 이러한 비인도적 죄악을 징치하는 한 방법으로 항노배 거리에서 군중재판을 한후 효수(梟首)하는적도 있었다 북조선에서 소련군이 조선민중에게 환영받지못하는 이유가 이러한 극히 야만적인 강간 강도등 행위로 말미암았는것이다 이번 몽으로 조선민중이 미군에 대한 신뢰감은 부쩍 감소

公憤을 不禁
民統宣傳部發表

(一)今次美軍의 蠻行에 對 [illegible]

社會民主黨發表
大部隊卽時撤去하라

[前略] 人間으로서는 想像도 할수없는 蠻行을 敢行하는 軍隊에게 民主朝鮮의 指導를 期待할수있을까 우리는 그를 全部를 歸納的으로 規定하는바는 아니다 아미 犯罪的要素는 完備되었다고보고 싶은 鮮卑에 質的으로 低劣하야 民族的人類的 感情만을 釀成하는 逆効果를 내일 危險을 多分히 包含한 大軍을 長期間駐屯하는 目的이 那邊에 있는가 疑心을 禁할수없다 이에 우리는 民族의 이름으로 一般輸送을 要請한다 美蘇兩軍이 公言하는바와같이 朝鮮民主課業完遂指導만이目的이라면 質的으로 가장優秀한 少數의 軍政要員外의 軍人은 急速히 撤去를斷行하라

여는 國際的公約을 無視 할수없다 朝鮮은 從來東方禮義之國으로 指稱되어오든 美風良俗이 代表的民族이니 만치 이러한 赤面할 野蠻行爲는 全民族的으로 또그냥黙過하지 않을것이다 (一)美國政府는 今後이러한 事件이 發生하는 일이없도록 同時에 同犯人을 軍事裁判에 依하고 朝鮮民族에게 謝罪하도록 바란다

美軍蠻行對策
婦總서討議會開催

부총(婦總)에서는 十一일오후一시부터 동연맹사무소에서 미군인만행대책강구회를 열고 전번 열차속에서감행된 미군병의 만행에대한 대책을 토의하였다한다

美軍에 뚜쟁이질하다
"星條"매담 一年體刑

시내명동(明洞)에있는「댄스홀」「성조(星條)」매담(女主人)리용자(李龍子)(三一)는 미인에게 술매부를 강요하였다는혐의로 지난 九일 종로서에서 인치하야 일건서류 군정재판에 회부되어 一년 체형언도를받아 즉시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다한다

日帝에 徵發된 朝鮮人軍屬
南方에서 戰犯으로 重刑呻吟中

일제四十년의 최후발악이었던 대동아전쟁으로 인하야 병군인 군속포로감시원등으로 해외각지에 강제징발을 당하야 혹사되든 나머지 해방이후 전범자인으로 중국과 남방에 억류되어있는 젊은 조선일군들이 수천명을 헤아리고 있었으나 그들부모 형제들은 소식을알길이없어 원망하며 도라올날을 꿈속에 생각코있었는데 이지음 남방 「싱카포르」 [illegible]들」로부터 조선청년八十四명이 「보고다호」를타고 지난二十一일 일본 우라가(浦賀)항에 입항하였다가 박다(博多)를거처 지난二일 부산(釜山)으로 다시 서울에들어와 북청출신 정낭(鄭浪)씨이하六명이 명동二가명동하숙옥에서 짐을 풀었다 이들은 미귀환동포의 명부와 현재 피수형 [illegible] 중형을받고 형무소에서 소내용과 그곳형편을 듣서 토로작성중인데 엄연하게 일본놈들의 부역을 쓰고 청장의 이슬이되는 종부들과 함께 그런데 남방각지에 아직 남어있는 청년들은 一천여명에 달하는데 「자와」를제한 각지에 체재중인 청년들의 명부는 본사조사부와 명동二가 명동하숙옥에 비치하여 있으므로 참고할 부형들에게는 열람하도록하고있다

拳銃强盜頻頻
首都警市民에警告

구년말을 앞두고 연말연시를 앞두고 서울시내에는 [illegible] 사전으로 수도관구경찰청에서는 흉흉성강은 경계망을 포진하고 수도치안에 만전을 다하고있는데 이지음강도에 침입을 시간적으로보면 경찰이 야간통행을 엄중이 취체하는관게인지 하오七시경부터 十시경까지사이로 발생하는 경향이보이는데 경찰에서도 임시잡잡는 권총이 또다시 나오기시작한데 대하야서는 일층긴장하고있다 특히일반도 방범에 협력하는 견지에서 각별한 주의를 당국은 요망하고있다

絞首刑

執行者(十二月二十九日現在) [illegible]

◇在新義州「감기」刑務所旣決囚名簿 ◇終身刑 ▲李[illegible](서울府[illegible]) ▲鄭[illegible](忠南扶餘郡[illegible]) [illegible] ◇二十年刑 [illegible] ◇十八年刑 [illegible] ◇十五年刑 [illegible] ◇十二年刑 [illegible] ◇十年刑 [illegible] ◇七年刑 [illegible] ◇六年刑 [illegible] ◇九年禁錮刑 [illegible] 重刑者 ▲文[illegible] 十年 [illegible]

휴지통

지구상에는 좀속도 하다만 어 [illegible]

[短篇連載小說]

길 (4)

金永壽 作
陶心 畵

그러나 아모리 말로는 임시라고 하지만 그래도 다니기 시작한다면 저절로 마음도 붙고해서 자연 붙어 붙게 되겠지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허나 그것은 나의 잘못 생각이었다. 정말 손군은 임시로 다니었던것이고 우선 다녀보자 하고 다니었음을 나는 채 한달이 못가서 알수 있었다.

그러니까 그것이 구월도 중턱이 한씬 넘어서였다. 하루는 밤늦게 술이 얼근히 취해서 들어왔다. 그동안 종종 술이 취해 들어와서도 혼자 한참 떠들다가는 곧잘 그냥 상겹게 곧 소러져 자는 정미라 그날도 나는 그저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나대로 물어앉아서 나 할 일만하고 있으려니까

「여보 김형, 다 오늘 그음 어데 끄만뒀소」

하였다.

「끄만두다니…!」

벼안간 듣은 소리라 아모리 술 취한 짜람의 소리라 해도 나는 저윽이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니까 손군은 그냥 옷을 입은채로 이불 위에가 털썩 할터니

「여보 김형 이남 에서 어디 일해 먹겠습디까」

하며, 말을 주섬주섬 꺼내다.

「글쎄, 파장인지 뭔지허는 놈자가 밥야, 재 할일을, 안허구 위에 올라가서 아레사람 욕이나 허구, 돈이나 중상이나 하구 이래서야 해먹겠소」

「허어!」

「그뿐이면 좋게. 윗사람 비위 마추느라구, 샤쓰니 양말이니 검어감이구 가서 빨래 껴정 해라 준대니깐!」

「허어!」

모두가 처음 듯는 소리고 생소한 이야기인지라 나는 그저 허어 허어 소리만 하고 있을수 밖에, 별도리가 없었다.

그래도 나는 마음이노이지 않아,

「그래 정말 끄만 두었소?」

하고 재처 물어보아도

「그럼 끄만 두지, 그런새끼들 앞에서 뭣이 뭐듭리 어떠케 일할수 있습디까」

하며 태연할때로 태연하였다.

그러나 그나마 끄만두면 당장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적다고는할수 없다. 나는 우선 그것이 염려되었고, 그래서 손군이 태연한 기색을보이면 보일수록 나는 또 나대로 초조하였고 불안하였다.

허나, 손군은 역시 누워서도 꾸우 꾸우 해가며

「해방이 뭐 줌 될려게 있나 했더니, 주인만 갈어 앉었지 별수없드군, 그래 암만해두 내가 떼니 옷나 봐」

하고, 저욱이 못마땅한듯 한번 후 걸게 숨을 쉬고 나더니

「전라도 광주에나 가볼까!」

하였다.

「광주……?」

이것도 처음 듯는 소리였다. 별안간 광주에는 왜 간다는것일까. 술이 취해서 그러나, 하고 자세히 얼굴을 드려다보아도 별 그다지 취한 기색도 아니었다.

「김형! 광주서 말야…무슨 통신이 하나 나온다든데, 편집국장을 모집한대나…영어를, 할줄 알면, 월급두 괜찮게 주겠대……그래서 거기나 가볼까 허지」

손군은 그러면서 내 얼굴을 처다보며 어떠케 생각하느냐고 의견을 뭇는것 같았다.

그러나 모두가 별안간 처음 듯는 소리요, 미리 생각도 아했던 일이라, 나로서는 좃니 어떠니하고 감히 의견을 말할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글쎄……」

하고, 어름 어름 하는수 밖에 없었다.

허나, 이튿날 손군은정말 광주로 떠났다.

謹賀新禧

大潤商會 朴順澤

春川(其二) 第二管區警察廳 職員一同

春川府大和町一丁目 昭陽酒釀造公司

春川府本町一丁目 東亞旅館 李相[illegible]

春川府 京城旅館 電話二〇六番

朝鮮林業開發株式會社 春川出張所 職員一同

春川府本町 江原繭糸工業社 金[illegible] 金[illegible]

江原道春川府[illegible]町六九九 東邦製絲所

春川府廳 職員一同

春城郡廳 春城郡農會 職員一同

朝鮮金融組合聯合會江原道支部 職員一同
春川金融組合職員一同
春川第一金融組合職員一同
協同生命保險會社江原道支社 職員一同

春川府本町二丁目七七 朝鮮料理 赤樂館 金甘用

立法議院 江原道議員當選謝禮 徐商俊 趙軫九 鄭冑敎

共生建設 合名會社江原支社 張奉壽外 職員一同

士麻腸中特效藥 洋藥皮膚病特效藥 賣藥都賣
鳳山藥房
春川府花園町一丁目一四〇 電話二三〇番 振替서울本局〇五四八